



국가보훈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작년 2월 28일부터 한 달여 동안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광판을 통해 고하 송진우 선생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송진우는 잃어버린 독립운동가”

- ◎ 해방 공간 좌우 세력이 충돌하면서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김구의 암살로 이어지는 비극 낱아
- ◎ 《해방 전후사의 인식》 광풍… 송진우·김성수를 토착 세력으로 몰고 여운형의 건준위에 정통성 부여

김태완 기자 kimchi@chosun.com

민족주의 사학의 거인이었던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1893~1950년)가 “정부도 없고 엄혹한 감시와 압박의 일제 시대에 오로지 혼자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몸 바친 인물은 고하(古下)밖에 없다”고 칭송했던 위대한 독립운동가 송진우(宋鎭禹·1890~1945년).

그는 왜 현대사의 주역에서 사라졌

을까? 역사책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

고하는 김성수·현상윤과 함께 3·1운동을 처음으로 모의한 중앙학교 3인방이자 《동아일보》 사장으로, 1920~30년대 언론·문화운동을 주도하며 독립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한 인물이다.

고하는 해방 직후 좌우 이념의 갈

등이 극심하던 시기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둔 국가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민족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였다.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인 김형석 박사는 최근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동문선 펴냄)을 출

간, 송진우의 굵고 짧은 일평생을 추적했다. 그리고 한국 좌익 세력의 가치관과 역사관에 큰 영향을 끼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가져온 역사적 왜곡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중양학교의 송진우 역할론’이 ‘신한청년당의 여운형 역할론’으로

김형석 이사장에 따르면 3·1운동의 진원이 중국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이란 연구 성과가 공론화되면서 중양학교의 송진우 역할론이 신한청년당의 여운형 역할론으로 바뀌어졌다. 아울러 무장투쟁만이 독립운동의 ‘절대선’으로 인정받는 풍조 속에 교육·언론·문화운동은 부르주아 민족운동으로 폄하되고, 실력양성운동으로 구별되어 독립운동의 영역에서 배제됐다.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3·1운동에는 두 가지 성격이 복합되어 있었



김형석 이사장이 쓴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동문선)

다. 하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종교와 직업을 초월한 민족 대단결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농민·노동자 등의 기층 민중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위운동을 확산시켰다는 측면이다. 이 때문에 우파에서는 민족 대단결을 중시하면서, 민족 대표 33인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었다. 반면에 좌파에서는 3·1운동을 계급투쟁으로 보고 농민·노동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3·1운동을 실패한 독립운동으로 민족 대표 33인은 투항주의자로 비판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여운형 중심으로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가 9월 6일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주도하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송진우를 비롯한 우파 인사들은 9월 7일 국민대회소집준비회를 개최하고, 3·1운동으로 구현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내세우며 임정봉대론을 주장했다. 이로써 해방 공간에서는 새 국가 수립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좌우 세력이 충돌하면서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김구의 암살로 이어지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해방 공간에서의 혼란은 1980년대 들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우리 사회 저변에 광풍을 몰고 오면서 재연되었다. 이들은 해방 직후의 민족 세력에 대해 송진우·김성수의 토착 세력,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 이승만과 안창호 계열의 기독교 세력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새 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송진우가 여운형보다 앞서서 총독부로부터 치안권 이양을 제안받고 거절한 사실은 부정되었고, 이후 여운형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에 불참한 이유도 새 정부 수립의 주도권을 빼앗긴 데 대한 열등감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졌으며, 결국 역사적 대의를 저버린 파렴치범으로 매도되었다. 이와 함께 송진우의 이름 앞에 ‘극우주의자’라는 접두어가 붙여버렸다.

왜 그랬을까? 1980년대 이후 좌파 세력의 가치관과 역사관에 큰 영향을 끼친 이 책은 해방 전후사를 ‘살아 있는 현재’로 읽어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우리 역사의 지향점을 ‘분단 극복’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 분단사관에 따라서 미군정과의 협력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새 국가 건설을 주장한

송진우는 극우주의자로 내몰리게 되었다. 김형석 이사장은 “송진우의 사상과 행적을 살펴보면 ‘극우’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말한다. 그가 쓴 논설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적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기간산업의 국유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지개혁, 사형제 폐지 등 당시로는 매우 선진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다. 국민대회준비회도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모든 정파의 인사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다.

김 이사장은 또 “송진우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네 차례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

송진우는 일제강점기 동안 네 차례나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세 차례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도합 27개월의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다.

또 백범 김구의 노모 광락원에게 선행을 베풀고, 백야 김좌진의 독립군 부대에 군자금을 지원한 일화도 사실로 검증이 된다. 한마디로 독립을 향한 집념을 불태운 민족주의자이자 애국지사다. 문제는 송진우의 행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행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후학들의 불찰이었다. 이로 인해 송진우는 잃어버린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¹¹¹⁾ **한겨레**